

코로나가 교육에 미친 영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학교의 폐쇄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필요한 기회와 도구 및 접근성을 갖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 교육격차 실태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 위주로 학기가 운영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격차가 한층 심화한 것으로 교육부는 발표했다.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불가피하게 학습결손이 발생하면서 학교 밖 학습경험의 차이가 학업 성취 격차로 이어진 결과이다. 원격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이에 쉽게 적응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에 학습 효율성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과학기술대 김현철 교수와 연세대 양희승·한유진 교수는 ‘등교일수 감소가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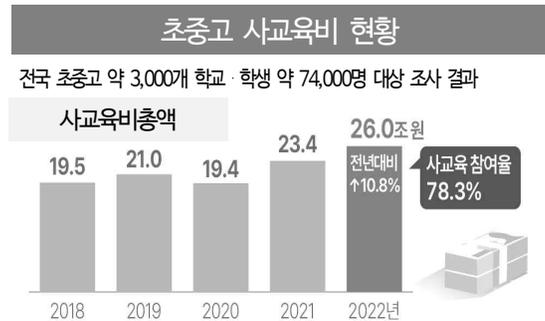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등교일수는 법정 수업 일수(190일)보다 17.2주(86일) 적은 104일이다. 다만 학교별로는 등교 제한 일수가 적게는 50일 미만에서 많게는 150일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연구팀은 지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등교일수 감소가 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로 국어·영어·수학 성적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평균 학업성취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등교수업을 적게 한 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 모두 상·하위권 학생 비율이 높고 중위권 학생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등교일수 100일 미

만의 학교에서 중위권이 3.1%p 줄어든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은 각각 1.0%p, 2.1%p 늘었다. 영어는 중위권이 4.9%p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각각 2.2%p, 2.7%p 늘었다. 수학과 중위권은 4.1%p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각각 1.4%p, 2.7%p 늘었다. 연구팀은 상위권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교육이나 대체 학습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공부로 오히려 성적이 올랐을 수 있으나, 하위권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학업에 손을 놓아버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는 가정 내 돌봄과 관리가 됐건, 사교육 참여가 됐건, 학생이 꾸준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중요하다. 특히 원격수업 환경에서는 가정 내에 학습에 필요한 설비 및 환경을 마련하거나 자녀가 성실

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모두 가정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전세계 교육 위기 악화시켰다

글로벌 학습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최악의 교육 위기 속에 전 세계 10세 어린이의 70%가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57%였던 수치에 반해 교육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학생들이 21조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생애소득을 잃게 되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기간에 걸친 학교 폐쇄와 가계 소득 감소에 따른 학습 빈곤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어린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남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재는 최소 수준의 문해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60%였지만 전체의 78%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폐쇄의 장기화와 불균형적인 경감 전략은 어린이의 학습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기초 학습 능력 부족한 어린이들은 더 까다로워지는 노동 시장과 더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내 인생의 한 구절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21살 겨울, 아버지의 회심을 목격한 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하나님은 참 사랑이셨고, 유일한 산 소망이셨습니다. 그토록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원망이나 아픔이 눈 녹듯이 녹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푸른 초장에만 누이실 줄 알았건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싸움은 믿기 이전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 없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말씀도 잘 알지 못했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제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갈 무렵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마 4:22)**”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달 동안 매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당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아버지 곁에서의 안락한 삶을 떠나 홀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이 기억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독립한 첫 근무지에서 기적처럼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들을 조용히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곧 그것을 여러 경로를 통

해 받게 하셨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집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손톱깎이가 필요했는데, 밤늦게 어느 학부모님께서 회사에 손톱깎이 세트가 새로 나왔다고 갖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은 그 밖에도 무척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나온 모든 걸음이 다 나를 통한 선물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며, 유일한 공급자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전해야겠다 결심했고, 근무했던 기독교학교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안에 자랐지만 상처가 많았던 아이들을

서지현
(월드와이드교회
유년부 전도사)



모아 기도 모임을 만들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받고 화해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을 전하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게 배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아버지, 의지할 곳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의지가 됩니다. 그저 주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음을 믿습니까?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미국의 70대 노인에 관한 뉴스가 작년에 떴었습니다. 크레이그 콜리(71)라는 분인데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9년여 동안 복역했다가 출소했습니다. 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주 시미벨리 시(市)는 2천100만 달러(236억 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려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치욕과 고통, 그리고 긴 세월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체포된 콜리 씨를 위해 그의 부모는 소송 비용을 대느라 집을 저당 잡혔고, 그가 감옥살이하는 동안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뒤늦었지만 다행히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어서 재수사를 통해서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DNA 검사 방법이 없었더라면 콜리 씨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연쇄살인의 8차 살해범으로 잡힌 윤성여씨는 20년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잡히고, 자백함으로써 그의 무고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참 불행을 겪었지만 그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권’의 이름조차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까요. 이것이 그대로 덮여지면 공의는 없는 것 일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갈등하고 몸부림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관리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엔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公義, right)란 히브리어 ‘체다카’로 부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그 행위대로 신상필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 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법을 정하신 분이 법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 법에는 상급과 형벌로 나눕니다.

우리는 개신교의 이른바 루터의 ‘술라 그라티아’의 은총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주셨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오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용서를 기회로 죄의 기회를 삼아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값싼 은혜’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합리화할 도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자유함을 죄의 기회로 바꾼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데 쓰고, 본심대로 그 은총의 자리를 죄로 채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롬6:2)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롬6:15)

왜냐하면, 은총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몸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울며 나홀로 부르심의 골고다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던지신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로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값싼 은혜로 취급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백성다워야 합니다. 내 백성이 세상의 거짓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떠나면 제국의 왕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십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절삭해서 가공하는 것처럼 연단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의에 늘 빠져서 교만하면 나와 같은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참 주인이신 그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악이 흥왕하고 불의와 부정직이 판을 쳐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다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자

신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완전한 공의는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인간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에게 공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각종 낮은 비와 이른비를 뿌리시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기어코 맺도록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 심이니라”(신9:4)

그 씨를 받아들이는 강박함만 없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공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뤄나가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라”(신16:20)

그러므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를 위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상급으로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조금 더 잘 보세요. 누가 결국은 성공하는가. 부정직과 불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성실한 자가 성취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잠11:19)

가장 높은 자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확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불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전5:8)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v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수 있을까

윤석열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북한의 핵 위협이 급증하면서 최근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대한민국의 핵 보유는 가능한 일인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한가

2022년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고,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협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며 갈수록 대남 핵 위협과 공포는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핵공격 위협과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것인가.

핵무기 기술적 능력은 있다

핵무기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 등의 핵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해 얻어내야 한다. 플루토늄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원자력 분야 과학기술 수준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재처리 방식이든, 우라늄 농축 방식이든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국제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핵무기 생산이나 획득을 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받는다. 그러나 NPT 10조는 ‘NPT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

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북한의 6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무력정책법 발표, 선제 핵 타격 위협 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를 순순히 용납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위해 NPT를 탈퇴한다면 탈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유엔 안보리는 우리나라의 NPT 탈퇴를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론짓고, 유엔헌장 41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동맹인 미국,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을 포함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G20의 위상을 가진 한국이 국가 생존에 필요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및 무역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은 자명하다.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되나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있어 대미의존도가 큰 나라다. 또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NPT에서 탈퇴해 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가 넘는다. 만일 한국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단기간에 제재를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또한 핵개발에 대한 제재로 우라늄을 비롯한 핵물질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 전력 생산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이 어렵다.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성장의 성과도 흔들린다.

핵무기 위력을 갖추기까지 비용과 인력과 시간필요

핵무기가 실질적 위력을 갖출 때까지 투자해야 할 비용과 인력, 시간의 문제가 있다. 핵폭탄 제조만으로는 위력을 갖출 수 없다. 핵탄두를 탄도·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해야 한다.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소형화·경량화다. 이후에는 탑재체에 핵탄두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시키면,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하고, 핵운용을 위한 지휘통제체계와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실제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원전 폐기물 장소도 정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핵 실험장(지하, 수중, 대·외기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핵 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기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확장억제력을 강화(핵 공유 논의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개발한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1950년대 내내 유지되던 적대적 균형을 깬 당사자는 중국이었다. 1962년 중국과 인도 사이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에서 인도가 패배하면서 인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서쪽의 적인 파키스탄과 동쪽의 적인 중국에게 협공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인도의 정치권과 언론을 강타했다. 게다가 1964년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자 인도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매진하였다. 1970년 3월 5일 세계 각국의 핵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NPT 체제가 발효됐다. 인도는 이 조약에 가입을 거부했다. 인도에게 있어서 NPT는 적대국인 중국의 핵 보유를 보장하는 반면, 인도는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가로막는 규범이었다. 그리고 1974년의 핵기폭장치 실험에 성공하였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무장에 놀라 과감하게 핵 개발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76년 파키스탄 역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했다. 인도가 NPT 가입을 거부하고 핵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가장 위협을 받는 파키스탄이 비핵화를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파키스탄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미국 상원은 1976년 글렌-사이명턴 수정안을 통과시켜 IAEA의 승인 없이 재처리 및 농축 시설을 도입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우선 타격이었다.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는 물론이고 파키스탄의 핵 능력 역시 이 시점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파키스탄은 연간 10~20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

한 독자적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능력을 보유했다. 게다가 두 나라는 생존을 위해 굳이 미국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농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나라였고, 수출도 공산품보다는 자원에 치우쳐 있었다. 미국의 제재는 원조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걸 의미했을 뿐, 두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 미-소 데탕트가 깨지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안보 위기감이 커지자 미국의회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인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오히려 우라늄 수출과 중수 제공을 약속했다.

파키스탄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에서 풀려났다. 미국은 소련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아프간에서 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제재를 해제하고 파키스탄에 군사·경제 원조를 재개했다.

현금이 사라진다? 디지털화폐 전쟁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상용화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114개 국가에서 계획 단계 또는 시범 운영 단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려는 이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 5G,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혁신기술의 발전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다양한 디지털화폐의 등장을 가져왔다. 민간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한 디지털화폐는 2022년 5월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즉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뜻한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가상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인 만큼 금융산업, 통화정책,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여전히 테스트 단계에 머문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현금 결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지난 2018년 현금 사용 비중이 13%까지 감소한 데다,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2018년 현금 사용 비중이 28%, 31%로 한국(26.4%)과 비슷한 수준이다. 편리한 간편결제수단이 발전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이 비대면 결제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편의성' 때문에 시작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수록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벽지지역 거주자들도 현금 없는 사회가 달갑지만은 않다. 게다가 대규모 정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아예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있다. 특히, 소수의 민간기업이 지급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카카오통 사태가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하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금융접근성 하락, 독과점의 위험,

개도국	2010	2020	선진국	2010	2020
아르헨티나	95	87	한국	79	54
브라질	86	74	일본	66	34
중국	99	41	싱가포르	59	39
인도	100	89	미국	51	28
인도네시아	100	96	영국	55	23
말레이시아	93	72	핀란드	53	24
멕시코	97	86	네덜란드	52	14
평균	95.7	77.9	평균	59.3	30.9

구분	국가명
도입	에콰도르, 바하마, 캄보디아, 동키리브, 베네수엘라
시범 운영	스웨덴, 중국,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한국
연구실험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EU, 태국, 프랑스

중앙은행 기능 약화 등 현금 없는 사회가 초래할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화폐로서 통용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디지털 돈이다. 일반 가게에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려 해도, 가게 주인이 비트코인을 잘 모른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비트코인 수만 개를 가졌더라도, 가게 주인 한 명이 부인하면 그 가치는 컴퓨터 속 0과 1에 불과하다. 하지만 CBDC는 기존의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부인한다고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CBDC는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액면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이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이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늘 가격이 1달러다. 나날이 가격이 바뀌어서 실제 사용이 어려운 암호화폐의 단점을 없애고, 결제와 송금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만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00%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발행 주체가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발행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발행 주체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리브라 모두 이런 지급준비금의 보유 여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반면에 CBDC는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입증된 화폐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필요 없고, 중앙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중국,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

중국은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총 11개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용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두 차례 이상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약 136억 위안(약 2조5000억 원) 이상을 유통시켰다. 중국은 홍콩을 활용한 국경간 결제 테스트, SWIFT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통한 국제 결제 노하우 축적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등 주요국 중에서 가장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행은 2020년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고 3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 업무에 착수하였다. 2021년 8~12월까지 1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테스트하였다. 2022년 1~6월 2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기능을 테스트한 후 2022년 하반기 중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제 사용 테스트 수행을 계획하였다.

디지털화폐 도입하면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중앙은행이 은행·금융기관에, 은행·금융기관이 개인에게 화폐를 유통하는 2단계 구조이다. 여기서 지폐, 주화가 아닌 디지털화폐를 유통한다는 점만 다르다. 개인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CBDC가 들어있는 계정 또는 별도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현금을 거래한다. 우려되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이다. 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결제는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 만약 현금을 CBDC로 바꾼다면, 이제 정부가 개인의 현금 거래 기록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이나 은행이 보관한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다면 전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탈루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안문제도 중요하다. 지금의 화폐 거래처럼 안전해야 한다. 보안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공인인증서처럼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면 CBDC는 외면받게 될 것이다.

KF-21, 대한민국 하늘을 지킨다

KF-21은 지난해 7월에 최초 비행 후 6개월만에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초음속 비행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음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와 같다. KF-21의 초음속 돌파로 우리나라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 8번째 초음속전투기 자체 개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이자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KF-21 보라매'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전투기는 주요 성능에 따라 세대가 나뉜다.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한 초음속 전투기는 4세대,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는 5세대로 분류된다. 앞에 붙는 숫자가 커질수록 전투기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이로 인해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실전에서 정상적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KF-21 보라매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전반적으로 4세대보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특정 부분에서는 일부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갖췄다. KF-21 보라매는 설계 단계부터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KF-21 무장분리시험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에서 이어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시험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3월 28일 KF-21이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진행된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공중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무장분리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시험이다. 작년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른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시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무장분리·기총발사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KF-21 전력화 예상 시기

방사청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해당 일정은 올해 11월로 예정되었으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6개월을 앞당겼다. 이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뒤 연내 양산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KF-21은 내년 양산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최초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까지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블록 1' 실전배치가 진행된다. 2028년까지 우리 1차 도입분 40기와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도입분 50대, 총 90대를 양산한다. 공대공 임무와 제한

적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무장 확보 능력을 통한 '블록 2' 개량사업이 진행된다. 성능이 개량된 KF-21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을 진행, 80대가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동시에 KF-21이 공군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전역 타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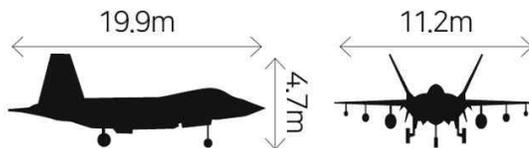
KF-21은 레이더에 잘 띄지 않는 '저피탐' 형상 설계를 적용했다. 조종사를 감싸고 있는 캐노피, 주날개와 보조날개에는 전파의 반사를 막아서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많이 감소시키는 레이더흡수물질(RAM)을 적용한 점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스텔스 기능을 탑재했다. 장착할 수 있는 무기도 다양하다. 공대공미사일로는 영국제 미티어와 독일의 IRIS-T 탑재가 가능하다. 미국제 AIM-120 암람과 AIM-9 사이드와인더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현재 미국산 전투기 F-15K에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KEPD 350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거리 공대지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형이 타우러스와 유사해 '한국형 타우러스'로도 불리는 새 미사일의 목표 사거리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500km 이상인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전선 인근에서 발사한다면 사실상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KF-21 보라매 제원

●자료 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승무원	1명(단좌) 또는 2명(복좌)
최대 탑재량	7,700kg
최대이륙중량	2만5,600kg
최대추력	4만4,000lb(파운드)
최고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	2,900km



19.9m (길이), 11.2m (폭), 4.7m (높이)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1~4호기 비행 성공 일시



호기	비행 일시	비행 상세
시제 1호기(단좌)	22년 7월 19일	33분간 비행, 최고 속도 약 400km/h
보라매형상	23년 1월 17일	56분간 고도 약 1만2,200m 비행, 마하 1.0(약 1,224km/h) 돌파
2호기(단좌)	22년 11월 10일	35분간 비행, 최고 속도 약 407km/h
3호기(단좌)	23년 1월 5일	37분간 비행, 최고 속도 370km/h
4호기(복좌)	23년 2월 20일	34분간 비행, 최고 속도 370km/h

※복좌형: 조종석 2명 탑승, 내부 연료탱크 공간 등 일부 변경의 단좌와 동일형상
※시제 5-6호기 상반기 중 비행시험 예정

- 22년 7월 19일 첫 비행 성공.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에 성큼 다가섰으며, 항공산업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쾌거이다.
- 23년 1월 17일 첫 초음속 비행 성공. 초음속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마하'로 표시된다. 마하 1은 시속 1224km이다.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해 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 23년 2월 20일 시제 4호기 첫 비행 성공.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다.
- 23년 3월 5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에이사) 레이더를 달고 시험비행. 국산 레이더 성능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KF-21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한 건 처음이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험비행을 수행한 전투기는 KF-21 시제 3호기로, 올해 1월 5일 첫 비행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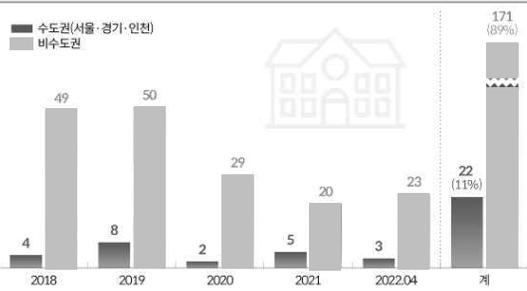
폐교, 지역명소로 탈바꿈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수도권 내 학교들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늘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초·중·고 폐교는 늘고 있는데 대부분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정 용도로만 매각 가능해 뾰족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학령인구는 2018년에 830만 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720만 명까지 내려왔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폐교를 가속화시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교육부 자료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는 193개에 이른다. 이중 서울(3개교)·인천(3개교)·경기(16개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171개(약 88.6%)의 학교가 수도권 밖, 소위 지방에 있는 학교였다.

■ 최근 5년간 수도권·비수도권 폐교현황



지역사회 폐교 활용 사례

■ KT&G 상상마당 논산

1992년 폐교되었던 충남 논산 한천초등학교는 리모델링되어 2011년부터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KT&G 상상마당 논산"은 문화예술을 위한 참여와 도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문화지형에 다양성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크게 문화예술교육센터, 아트캠핑빌리지, 아방라운지로 이루어져 있다.

■ 부산산림 교육센터

2013년 2월 폐교된 윤산중학교는 2015년, 리모델링을 거쳐 산림교육센터로 재탄생하였다. '부산산림교육센터'는 부산에 생긴 국내 첫 도심 산림교육센터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장소이다. 학교 야외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자연생태 학습장, 숲체험실, 전시시설, 숲유치원, 숲 도서관 등 참여와 체험 위주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 영천 영어타운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영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북 영천시 영북 초등학교를 영천 영어타운으로 재탄생 시켰다. 영천영어캠프에서는 영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3일 체험 프로그램, 중학교 1학년생을 위한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영어 영재 반 학급을 편성하고 무료 원어민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별 주제체험학습, 기초영어 체험 등 실생활과 연계한 영어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에는 영어캠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천시민들을 위해 영어회화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강릉 예맥아트센터

강릉시 원산면에 위치한 강릉 예맥아트센터는 1995

년 폐교된 왕산초등학교 목계분교를 활용한 곳이다. 15년간 방치된 폐교를 2009년 강릉문화원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한 곳이다. 교육연수와 문화예술 교육, 녹색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월에서 10월 까지 유·초등학생과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전통문화 및 녹색교육인 '솔향녹색학교'가 운영된다. 국악 체험캠프와 문화예술 체험캠프, 여름캠프, 강원도 문화기반 시설 연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평창 무이예술관

무이예술관은 폐교 활용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1999년 폐교된 무이초등학교를 2001년 폐교 스튜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관했다. 이곳에는 조각과 도예, 회화, 서예가 함께하는 작업실과 오픈 스튜디오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곳이지만 갤러리와 야외조각공원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자 2015년부터 체험관 등의 프로그램을 늘렸다. 무이예술관의 특징은 넓은 운동장을 모두 조각공원으로 활용하며, 관람객이 직접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고 있다.

■ 고흥 커피사관학교

고흥군은 2010년 6월 폐교였던 과역동초등학교를 매입해 '고흥커피사관학교'로 탈바꿈 시켰다. 이곳에서는 커피 생산부터 수확, 가공, 커피음료가 되기까지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산커피생산농장으로 커피와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공히 '커피사관학교'이다. 고흥군은 이곳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체험교육이나 나무심기, 핸드드립, 로스팅 등 다양한 체험과 견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Let's Travel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06개 국가·지역

입국 제한 현황				구분	조치 해제 국가 지역
국가	입국제한	COVID-19 서류		격리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일본	×	○	○ (백신3차 접종 미만시)	△ (출발지역별 상이)	미주(15)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파나마, 캐나다, 가이아나,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페루, 안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중국	○	×	○	×	
인도네시아	△	○	×	×	중동(10)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필리핀	△	○	×	△ (백신미접종자 양성판정시 격리)	
미국	×	○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민비자 제외)	×	×	유럽(48)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스페인, 몰타,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타지키스탄, 오스트리아
사이판	×	×	×	×	
					아·태(16) 몽골, 호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쿡 제도, 사모아, 태국, 비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피지
					아프리카(17) 가봉, 남아공, 베냉, 르완다, 수단,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감비아,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적도기니, 우간다

K-로봇 시대, 로봇산업 뜬다

최근에 생산현장에서 공장자동화를 주도하던 로봇이 아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가정에서, 공항에서, 음식점에서 동작하는 로봇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로봇을 통해 로봇 산업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비교

분류	산업 로봇	협동 로봇
크기	중형, 대형	소형, 중형
탑재량	200kg~	3~25kg
설치	○(안전 펜스)	×
공간	사람 접근 금지	사람 접근 가능
조작	펜던트, 초기 티칭 필수	태블릿
비용	0.5억~2억 원	0.2억~0.5억
기업	현대로보틱스, 로보스타 등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생산 방식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변량생산
도입 기업	대기업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신한투자증권

산업용 로봇 상장사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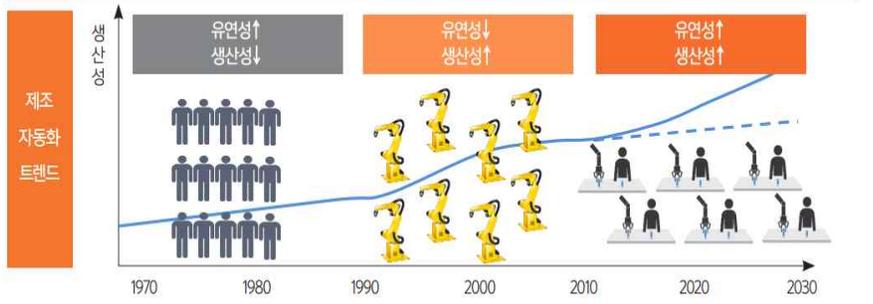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기업
로봇 주요부품	액추에이터	뉴로메카, LS메카피온
구성 요소	모터	하이젠모터, 코모텍, LS메카피온
	SR감속기	우림피티에스, 해성티피씨, 모트룰, 포메탈
	SH감속기	에스비비테크, 에스피지
	제어기	알에스오토메이션, 아진엑스텍
완성 로봇제조	서비스용	로보티즈, 에브리봇, 유진로봇, 리셀
	협동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산업용	현대·두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로보스타, 라온테크
현장 대응용SW	SW, SI	코닉 오토메이션

*모터 관련회사의 경우 비상장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사람,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의 차이

	협동로봇	특징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특징	설치, 운영이 쉬우며 안전함		빠른 속도, 복잡한 운영, 위험
	단순 조립, Pick & Place	용도	용접, 도장, 팔레타이징
	전자/반도체, 식품/의약품	적용 분야	자동차/기계, 전자/반도체
	UNIVERSAL ROBOTS, rethink robotics	주요 업체	KUKA, ABB, FANUC, YASK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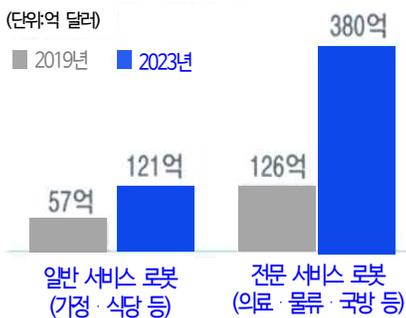
자료: 정용복, 협동로봇의 현황과 전망, Global Smart Factory Conference, 발표자료.2017.12

국내·외 주요 로봇 부품 기업

부품	기능	기업
센서	이미지, 자이로, 거리 센서	키멘스, 음론, 코그빅스 등
제어기	PLC, CNC, GMC	미쓰비시전기, 슈나이더전기, 알에스오토메이션, 아진엑스텍
서보모터	AC서보, DC서보	하이젠모터, 코모텍, LS메카피온
감속기	하모닉, RV	우림피티에스, 해성티피씨, 모트룰, 포메탈, 에스비비테크, 에스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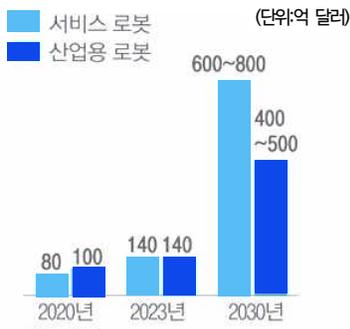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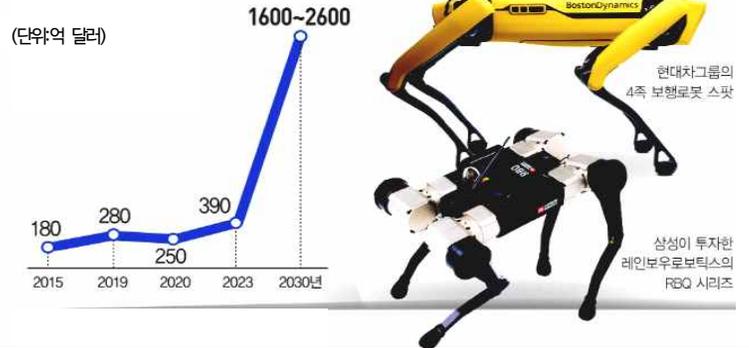
자료: 국제로봇연맹, 마케츠앤드마켓츠

세계 로봇 시장 규모



자료: BCG

글로벌 로봇시장 규모 전망



국내 주요 F&B 서비스용 로봇 기업

기업	내용
LG전자	서빙 로봇 'CLOi' 개발
KT	서빙 로봇 유통, 솔루션 제공
현대중공업	자회사 현대로보틱스가 서비스용 로봇개발
레인보우로보틱스	서빙 로봇 출시 예정
인탑스	서빙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 'Servi' 독점 생산
뉴로메카	교촌에프앤비와 치킨 로봇 개발
티로보틱스	음료 제조 로봇 개발
우아한 형제들(비상장)	자회사B-로보틱스에서 서빙봇 개발
브이디컴퍼니(비상장)	국내 서빙봇 점유율 1위

국내 대기업 로봇 사업 현황

- 삼성전자**
 -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5% 확보, 콜옵션 계약으로 최대주주 오를지 관심
 - 삼성의 첫 로봇기업투자
 - 연내 시·어 특허케어 로봇 'EX1' 출시 계획
 - 웨어러블 로봇 및 협동로봇 중심
- 현대차그룹**
 -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
 - 물류로봇 중심사업
 - 휴머노이드 부문에선 세계 최고 기술력
 - 정영선 회장이 지분 20%를 사보로 구입 관심
- LG전자**
 - 2017년 로보티즈 지분 10% 투자 이후 2018년 산업로봇 로보스타 경영권 인수, 현재 지분 38%로 LG전자가 최대주주
 - 협동로봇, 가정용 서비스로봇 중심
- 두산그룹**
 - 2017년 10월 두산로보틱스 출범, 현재 10개 모델로 세계 협동로봇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라인업 확보
 - 국내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5위
 - IPO추진 이슈



번식기의 딱따구리가 뼈를 먹는 이유는?

우리는 달걀을 먹는 동안(삶은 달걀, 계란후라이, 계란찜 등으로) 달걀껍질을 먹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등어나 닭고기를 먹을 때, 뼈를 먹지 않는다. 어떤 새와 포유류들은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칼슘을 얻기 위해, 부서진 알껍질이나 달팽이껍질을 먹는다. 딱따구리와 도요새와 같은 새들도 또한 이 기본적인 미네랄을 얻기 위해 뼈를 먹는다. 칼슘을 섭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특히 번식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관련된 질문으로, 태아가 성장하며 자궁의 생리학적 변화를 겪는 임신부는 갑자기 해산물(또는 다른 무엇이든)을 먹고 싶어 하는 갈망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임신부는 영양학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영양분으로 칼슘을 취하는 행동은 성경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가 피조물들이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입력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즉, 생물은 그 종류대로 지구의 서식지에 ‘충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창세기 1:22).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세기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과학으로 위장하여 이러한 것들이 자연주의적 과정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창조주를 배제하기 위한 진화론자들의 오만

한 상상과 헛된 말을 ‘뒤엎어버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디모데전서 6:20). 창조주는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비뚤물과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생물들이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창조주는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제공했고, 우리는 지금 많은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는 유전학과 후성유전학에 의해 조절되는 신체적 생리적 특성들과 함께, 새의 비육체적 “정신”에 의해서 수행되는 의사결정 기반 행동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육체적인 신체 시스템과 비육체적 정신 행동의 균형 잡힌 조화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 중 하나인 것이다(요기 9:10).

생물들이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포함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살아가는 서식지에서 찾을 때, 그들은 연속환경추적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취한다. 따라서 창조주는 생물들이 그들의 서식지에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서식지가 동물을 “선택”하거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가 만드신 붉은벼슬 딱따구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생물들

은 알을 낳기 직전과 알을 낳는 동안 뼈로부터 칼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뼈조각을 소비한다.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암컷들은 땅에 있는 맹금류들이 뱉어 놓거나 배설해놓은 펠릿에서 뼈조각들을 꺼낸다... 작은 뼈조각들은 펠릿에서 바로 섭취했고, 큰 뼈조각들은 나뭇가지로 옮긴 후에, 부리와 턱으로 쪼고 부숴뜨린다... 또한 나무껍질 사이에 뼈조각을 끼운 다음, 부리로 췌기처럼 박고 두들겨 으쓱했다. 우리는 나무에서 숨겨둔 두 개의 뼈조각을 찾아냈는데, 딱따구리들은 숨긴 뼈를 꺼내어 소비하고, 다른 곳에 숨기기도 하는 것을 관찰했다.

알을 낳지 않을 때, 암컷 딱따구리는 대부분 뼈조각을 무시하지만, 번식기 동안에는 뼈조각을 찾고 칼슘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는 의도적인 것이고 목표와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행동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다! 암컷 딱따구리는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무작위적 돌연변이에 의해 우연히 생겨났다는 진화론은 딱따구리들이 어떻게 알을 낳는 계절에 맞춰 칼슘이 풍부한 뼈조각을 사냥하고 섭취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붉은벼슬 딱따구리를 포함하여 모든 창조물이 때에 맞추어(전도서 3:1) 목적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창조과학회 제공)



딱따구리 쪼는 속도 총알의 2배

딱따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기는 약 15~53cm 정도다. 이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행동을 살펴보면 나무에 구멍을 뚫어 집을 짓고 살면서 나무속에 사는 곤충을 잡아먹고 살도록 특수하게 설계돼 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붙어 밑에서부터 나선형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먹이를 찾는데, 나무에 수직으로 달라붙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두 개의 발가락은 뒤를 향해있고, 나머지는 앞을 향해 있다. 강한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에 쉽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꼬리에 난 뾰뚱한 깃털은 체중을 나무에 실어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먹이를 잡아먹게 된다. 한 자리에서 1천 마리

정도의 애벌레나 곤충을 먹어치우며 하루에 적어도 2천 마리 이상의 해충을 잡아먹어 산림을 보호하게 된다. 이 많은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찾아 잡아먹기 위해 일 초에 15~16회의 속도로 나무를 쪼게 되며 이때 머리의 움직이는 속도는 총알의 두 배정도 빠르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나무를 쪼아대는 힘은 중력의 1천 배 정도로, 쉽게 나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딱따구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딱따구리의 부리는 다른 새에 비교해 강하고 끝이 끝과 같이 생겨 효율적으로 나무를 쪼아낼 수 있으며, 나무를 파낼 때 생기는 먼지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코는 많은 깃털로 덮여 있다. 대부분 새는 부리가 두개골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나, 딱따구리는 두개골과 부리 사이에 스펀지 같은 특수한 조직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다. 딱따구리의 머리에는 특수한 근육이

있어 부리로 나무를 쪼는 순간 뇌를 반대 방향으로 당겨 충격을 덜 받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충격을 줄이는 기술이 있다 해도 부리로 쪼는 순간 머리의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딱따구리는 항상 머리를 쪼는 면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직각을 이루도록, 목의 근육 또한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다.

부리로 나무의 껍질을 쪼아낸 후 곤충의 굴을 발견하면, 긴 혀를 집어넣은 다음 끈적거리는 물질을 분비하여 애벌레나 곤충이 혀에 달라붙도록 하여 끌어낸다. 이들의 혀끝에는 창끝과 같이 생긴 것이 붙어 있는데, 이곳에 예민한 신경과 함께 콜라겐이란 단백질에 의해 부착된 작은 털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혀끝에 닿은 물질이 나무인지 곤충인지 뇌에 정확한 정보를 주어, 깊이 숨어 있는 것들까지도 효율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인 것이다.



열반의 다이제스트

中, '여우사냥' 작전개시... 해외 도피 부패 사범 검거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을 검거, 본국으로 송환하는 '텐왕(하늘의 그물)'과 '여우 사냥' 작전을 재개한 중국이 해외로 달아난 부패 관리자를 두 달 만에 체포해 송환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발표했다. 중국 중앙 반부패 협조 소조 국제 추적 업무 관공실은 산시·윈난성과 공조해 리시안 전 산시성 식량국장을 해외 도피 2개월 만에 검거, 송환해 재판에 회부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투쟁에 나서면서 매년 텐왕과 여우 사냥 작전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7천여 명의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고, 51억2천만 달러(약 6조7천억 원)를 회수했다. 미국 등 서방은 텐왕과 여우 사냥이 해외 반체제 인사 송환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등 해외에서 수십 곳의 '비밀경찰서'를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 군부 공습에 사망자 110명... 대부분 민간 학생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한 공습으로 사망자 수가 11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얀마 군부는 임시정부의 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을 표적 공습했다. 목격담에 따르면 전투기가 군중을 향해 직접 폭탄을 투하했으며, 30분쯤 후에는 헬리콥터가 나타나 사격을 가했다. 이 행사에는 대략 150명이 참석했으며 음식을 받으러 행사장에 온 여성과 노인, 어린이, 이웃 마을 주민 등 민간인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2021년 2월 쿠데타 발발 이후 최악의 민간인 희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유엔, 미 국무부, 유럽연합이 미얀마 군부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자 끔찍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인도네시아도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번 투약에 2만 원... 값싼 마약 어디서 만드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의 세계 마약생산국은 다음과 같다. '아편대국'으로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은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인 양귀비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한다. 불리비아는 매년 1만기량의 코카인을 생산해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코카인은 대마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불법 물질이다. 브라질은 매년 2000MT(메트릭톤)의 코카인 등 불법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UNODC는 추정한다. 콜롬비아는 코카인의 주원료인 코카인의 최대 생산지로 매년 1만 4000MT의 코카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차지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대마초 수출국이다. 라오스는 '크리스탈' '아이스' 등으로 불리는 품질 높은 필로폰을 생산한다.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데, 라오스가 세계 공급량의 40%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멕시코는 전 세계의 다양한 불법 마약 물질이 모이고 나가는 곳이며, 나이지리아는 매년 약 500MT의 마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은 연간 약 500의 필로폰과 1500의 헤로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北, "자녀 교양 잘하라" 부모에 연대 처벌

북한은 청소년들의 반동사상문화를 뿌리 뽑는 다매 반동사상 죄를 처음 범한 자녀의 부모들에게도 연대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북한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범일 경우에도 남조선 영화를 보다 적발된 청소년은 노동교화소 5년형, 그 부모일 경우 노동단련대에 6개월 이상 수감되고 자본주의 춤이나 노래, 남한식 말투가 적발되면 자식이나 부모 모두 노동단련대 1~3개월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인민반회의에서는 자녀교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부모들이 순간순간 자녀의 교양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본주의 날다리 춤이나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자가 된 다매 부모의 책임을 역설했다고 한다.

반동사상문화에는 영어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거나 10대 학생들이 모여 통기타를 치면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현상,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세수 부족 경고등

올해 들어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 원 줄었다. 2월 누적 세수 부족분(약 16조 원)을 감안해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걷히는 세금은 380조2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올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세입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 20조 원가량 부족하다.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한다.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한은에서 48조1000억 원을 빌려 썼다.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부로선 세입 예산을 축소하거나 적자 국채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외신이 본 韓저출생 원인 'hagwons'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매해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는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 부담을 꼽아왔다. 외신 역시 지난해 9월 블룸버그에서는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특히 매체가 지목한 것은 '학원들(hagwons)'이었다. 블룸버그는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

인의 교육비로 약 6000달러(약 830만 원)를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5.1%)의 2배를 넘는 증가세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올랐다.

교황이 흰색 패딩을... AI 답페이크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와 영상의 부정적인 과급력도 커지고 있다. 실제와 가짜 이미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아내가 아닌 두 여성과 각각 손을 잡고 있는 합성 사진이 돌면서 머스크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소 우리가 알던 사제복 대신, 두꺼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그것 또한 AI 프로그램이 그린 가짜 이미지였다.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인 '딥러닝'을 창시한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AI 시스템은 인류 사회에 위협이 될 만큼 성장했다"며 "하지만 인류가 이 구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피부는 외부 환경에 온몸으로 맞서며 최전선에서 우리 몸을 지켜준다. 태양 속 자외선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색소성 질환뿐만 아니라 일광화상, 피부노화, 피부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자외선이 피부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살펴본다.

자외선과 피부손상 관계

피부노화와 피부암의 손꼽히는 원인 1위는 바로 자외선이다. 태양광선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분된다. 이중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A, B, C로 분류되는데 자외선 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돼 지구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A와 자외선B다.

자외선A는 피부를 검게 할 뿐 아니라 화학 작용을 유발해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부결을 거칠게 하는 등 노화를 촉진시키고, 주름의 원인이 된다. 자외선B는 장기간 노출시 피부를 빨갛게 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전체 자외선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파장도 짧아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 않지만,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며, 색소침착이나 피부암,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연세대 지구환경 연구소가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의 자외선 강도를 측정한 결과, 기미·잔주름의 주범인 자외선A는 5~6월에 가장 높고 화상과 피부암의 원인인 자외선B는 7월에 가장 강했다. 피부암은 자외선과 관계가 깊어 자외선에 취약한 백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멜라닌 색소에 의해 피부가 보호되는 유색인종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령인구 증가와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피부암 환자의 빠른 증가세가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부암 환자는 41.5% 증가했다.

자외선 손상으로 인한 가시적 징후 줄이기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는 되돌리기 아주 힘들다.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

- AHA 또는 BHA 각질제거제: 자외선에 노출돼 피부에 쌓인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한다. 피부 결은 매끈하게 정돈되고 피부 톤을 개선해주며 전체적으로 윤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 레티놀: 자외선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한 주름과 다른 노화의 징후를 줄여준다.
- 비타민 C: 자외선에 노출되어 얼룩덜룩해진 피부 톤을 밝게 해준다.
- 항산화 성분: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SPF 제품의 효율성을 증진해 준다.

피부를 희고 탱탱하게

- 당근: 잔주름이나 기미를 없애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당근을 갈아서 팩을 하거나 당근 마사지해준다.
- 고구마: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피하지방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

- 아스파라거스: 요오드 함량 풍부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심혈관 질병 예방한다.
- 송이버섯: 지방 함유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피부노화를 지연시키고, 주름살의 형성을 완화시킨다.
- 오매(깎불에 그을린 매실):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 앵두: 혈홍단백의 생성을 촉진시켜 보혈하고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 오디: 흑자색의 오디는 미용식으로 훌륭하다.
- 잣, 호두: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을 좋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 메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톤을 투명하게 해준다.

■ 피부암 예방법

여름철 야외활동 자제하기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창가 가장자리 피하기

절주와 금연

■ 피부암 악성 여부 확인하는 ABCDE 관찰법

구분	양성종양	악성종양	내용
A (Asymmetry) 비대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점은 중심으로부터 균등하게 성장하여 좌우대칭의 형태의 보인다. 모반의 좌우가 비대칭하다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B (Border) 불규칙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점은 가장자리 모양이 굴곡이 없이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모반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다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C (Color) 색조의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점은 표면의 색이 한가지로 균일한 색조를 보인다. 모반의 두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조와 음영, 특히 흑청색, 흰색과 적색을 보인다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D (Diameter) 직경이 0.6c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점은 대부분 0.6cm를 넘지 않는다. 최근에 생긴 점이 직경이 0.6cm가 넘고 점점 커진다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E (Evolving) 색조나 크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은 점이 새로 생겼거나 기존에 있던 점이 모양·크기·색조 등이 변화하거나 가렵고 화끈거림·통증·출혈·괴양·딱지 형성 같은 표면상태의 변화를 보이면 악성화를 의심할 수 있다.



엠펙스(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란?

국내에서 6번째 엠펙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이다. 엠펙스(MPOX)는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코로나19와 동급인 2급 감염병이다. 증상은 두통, 38.5도 이상의 급성발열, 림프절병증(부은 림프절), 근육통, 허리통증, 탈진, 무력증 등이다. 감염되면 초기 발열기는 첫 날부터 3일 정도까지 열이 나기 시작하고, 보통 4일을 넘어서부터 전신으로 발진이 생기는데 수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발진이 전신으로 퍼진다.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사망률은 3~6%, 또는 지역마다 3~10% 정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2차 감염이 된다든지

타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한다. 엠펙스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를 받는다. 피부 병변의 딱지가 떨어지는 등 감염력이 상실할 때까지 격리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감염은 주로 성관계 등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이뤄진다. 감염자가 이용한 옷이나 침구·수건을 만지거나 감염자의 기침 등을 통해 전염될 수도 있다. 엠펙스는 원래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2년 11월 29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두창이라는 질병명이 특정 집단·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및 낙인적 용어로 사용된다고 질병명을 'MPOX'로의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지금 서울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뭘 물어볼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저녁, 서울 종로의 한 레스토랑에 나타나신다면 어떨까.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나 한 사람만 꼭 집어 초대하신 자리라면 어떨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는 저자는 현실에선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을 소설의 양식을 빌려 말끔하게 연출해 낸다. 대화를 통한 전도라는 느낌이 거의 안들 만큼 흡인력이 대단하다. 흥미롭고 기발한 설정으로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복음 이야기를 감성적인 대화 나눔의 분위기에 비신자의 눈높이와 정황에 맞춰 제시한다.

닉 코민스키라는 이름의 평범한 비신자 직장인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한 낯선 존재로부터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첫 장면부터가 매우 흥미롭다. 그 후에도 이 책은 줄곧 '나와 대화 나누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예수인가?'라는 닉의 호기심을 이야기 전개의 주된 동력으로 삼는다.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과 악수를 하는 순간, 닉의 코웃음 섞인 반감이 폭발한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제야 뵈게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일행 열두 명은 함께 안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양복 차림으로 문히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 전혀 튀거나 주제넘지 않았던' 예수의 진중하고도 열린 자세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차츰 심리적 무장 해제를 경험하는 닉의 모습이 실감 나게 그려진다.

'닉,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이 시도하시는 변증 전도의 내용에는 기독교 변증이 전도 현장에서 증시하는 웬만한 레퍼토리가 거의 다 들어있다. 전도 대상자를 앞에 앉혀 놓고 그냥 쪽 전하는 내용이라면 뻔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양식의 극적인 플롯을 최대한 활용한 이 책은 비신자인 닉의 반론적인 질문들을 곳곳에 긴장감 있게 배치시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만

의 독특성이나 무신론의 허점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놓는다.

"힌두교가 선생이 알고 있는 세계와 맞아떨어지던가요?", "혹시 당시 인도에서 고통이 너무 커서 부처 고타마 싯다르타는 그 고통을 합리화할 설명을 만들 어냈고,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데 바탕을 둔 거대한 믿음 체계를 발전시킨 건 아닐까요?", "알라 신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깊은 욕망을 지닌 운명으로 태어나게 하고는, 왜 그 욕망을 채워 주려 하지 않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세팅과 분위기에서 전해지는가에 따라 그 전달력은 천차만별이다. 변증 전도의 가장 좋은 세팅은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대화의 자리다. 게다가 상대방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라면 더 좋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증이 '대답'(벧전 3:15)이란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이 먼저 호기심이나 의문을 갖고 묻게 해야 한다. 그렇게 묻게 만드는 것까지가 변증 전도의 방법론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 상대방이 제대로 묻지도 않는데 매끄럽게 잘 정리된 대답만 일방적으로 냅다 들어부어 온 경향이 많았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의문점들을 놓고 자유롭게 묻기보다는, 적당히 덮어 놓고 믿는 게 더 은혜롭다는 분위기가 마치 용인됐다. 인류사에서 예수란 분만큼 희한하고도 신비로운 존재는 없다. 그러나 예수는 이름이 흔하디흔한 종교 용어의 하나처럼 여겨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는 마땅히 가져야 할 정당한 의문이나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을 듣고 닉은 '이 남자는 미치광이거나 정말 뛰어난 배우이거나 아니면 정말로...'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쟁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독특한 삶과 사역과 부활이 증언된다. 그 성육신 사건은 사람들이 온갖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의 힘으로 얻으려고 애쓰는 신과의 인격적인 교감이나 연합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선물로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라고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그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영생의 삶 그 자체라고 결론짓는다. 이 책의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는 식탁 교제의 말씀(계 3:20) 또한 이 테마를 선포한다.

이 책의 말미에는 예수님이 닉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가 밝혀진다. 닉의 부모가 이혼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이후 훗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닉이 하나님에게 '여기 와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탄식했던 말을 예수님이 기억하셨고, 그때부터 그날 저녁의 만남이 계획되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책에서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를 대중의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한 개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그의 삶의 콘텍스트 안에서 그가 가진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에게 맞는 복음을 그가 알아듣도록 전하신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획일주의에 대한 거부'다. 교회가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획일화된 대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있는 인격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문턱을 낮추는 성육신의 섬김을 기꺼이 감당할 때, 예수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더 널리, 더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1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허공에 떠 있는 둥근 지구, 정교하게 빚어진 육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양심, 인류역사에 나타난 일정한 흥망성쇠의 패턴, 이 모든 질서는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지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에 의해 지어진 증거들이다.

2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세상에 악과 고통, 재난과 죽음이 생기게 했나?**

A 하나님은 사람을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시고 선악과를 금지했지만 인간이 불순종했다. 그럼에도 불순종의 결과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의 시험이 아니다. 악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3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왜 기독교는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가?**

A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셔서 인간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4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나?

A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신다. 옛날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경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누구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책임이 있다고 경고한다.

5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아나?**

A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질서있게 다스려진다. 그러나 인간만은 불법을 행해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사후 지옥에서 심판하신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변증전도연구소 킷북에서 다룬 변증전도용)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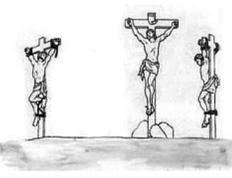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		8			9		7
						10		
	2	2		6				11
				13				
3								12 12
				14			13	
4	4		18					
	5	5		17	16		15	15
		6						
7								16

10. 성숙한 남자의 코밑이나 턱 또는 뺨 언저리에 난 털
11. 어떤 대상에 쏠리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나 호감
12.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빛깔을 들이는 물질
13.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14. 이미 잘못된 것을 뒤늦게 뉘우쳐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15. 신문사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신문
16.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함
17. 일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되는 쌍방이 서로 의논하여 시비를 가림
18. 오늘의 바로 다음날

14. 어떤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하여, 그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덧붙이는 이야기
15.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
16.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지난 4월호 정답입니다>

인	구	결	벽	격	변	명
결	돌	연	변	이	성	
미	봉	책	락	모	내	기
		가	처	벌	각	축
문	지	방			제	초
외			주	방	장	
한	옥		사	마	수	걸
	신		바	위		학
착	각	느	구	태	여	심
	신	경	질	두	행	진

가로문제

1.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갈수록 점점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
3. 원앙을 수놓은 이불
4. 비, 이슬,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집의 위쪽을 덮어 씌운 부분
5. 음식을 차려 손님을 모심
6.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
7. 체온이 올라갈 때 열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
8. 어떤 일이나 사물을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9. 물건의 값이나 주가 따위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형세

세로문제

1. 소나 돼지 따위의 고기나 뼈를 파는 가게
2.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원료나 제품이 처음 생산된 땅
4. 상처나 부스럼 따위를 감싸 매는 데 쓰이는 소독한 천
5. 두 물체를 서로 붙이는 데 쓰이는 물질
6.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에게 팔
7. 때 묻은 옷이나 피륙 따위를 빼는 데 쓰는 기계
8. 우리나라 국가
9. 매우 심한 더위
10.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으로,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매우 인색한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11. 신문이나 책, 광고지 등 인쇄된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2. 과분한 듯하여 아주 고맙게 여김
13.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2023년 5월 14일 (주일)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15분 / 3부: 오후 2시, 본당

교회학교 이벤트데이

2023년 4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본수공원

전도축제 발대식 ■ 2023년 4월 2일



전교인 노방전도 ■ 2023년 4월 8일



부평목장(임종대/김미성 가정)

◀ 새가족 심방
목장순방예배 ▶



상동목장



삼산2목장



◀ 교사 및
학부모기도회
부활절발표회 ▶



고등부



초등부



◀ 연령별 모임
실버스쿨 ▶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평목장
안병숙권사

아웃리치.

언제나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도 아웃리치는 설렘보다 건강의 문제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염려의 마음도 잠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이 고백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생각, 감정이 아닌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갈 때 염려는 평안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아웃리치팀이 결정되고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사회, 전도 간증, 복음 제시를 영어로 암송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공지를 듣고 머리가 캄캄해졌습니다. 영어로... 암송해서... 하나님... 팀원들에게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간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인도 전역에 복음

에 대해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으므로 거룩한 부담으로 아웃리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격려하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텔리와 하리아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은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간증, 복음 제시, 축복기도였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듣고 함께 공감해주는 준비된 영혼들을 보면서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인도 땅과 영혼들을 축복할 때 귀신이 떠나고 어두움과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 14:12)

”

아웃리치 기간 동안 찬양 말씀 기도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숙소에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가정교회에서 인도 땅을 축복하며 찬양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원포인트 큐티는 인도아웃리치 팀을 위해 예비하신 만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주시는 능력의 말씀, 공동체의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인도 땅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신 인도팀 한분한분 감사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v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층 분당
	토	오전 6:00	지하층 분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층 분당
	2부	오전 11:15	지하층 분당
	3부	오후 2:00	지하층 분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층 분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고등부	오전 9:00	4층 비전랜드홀
국제 사역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안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블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vch.or.kr

2023 상반기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에로의
설레임

2023년 5월 14일 (주일)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15분 / 3부: 오후 2시, 본당

교회학교 이벤트데이

2023년 4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분수공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초청일과 전,후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